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남기는 게 나쁘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이런 표시'만' 하면서 주객전도되는 상황을 문제 삼는 겁니다)

대신 필자가, 혹은 이 글이 나에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필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는 '무조건' 파악하면서 읽으실 겁니다.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을 읽는 것이고 이것을 읽을 때는 지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모든 글은 하나의 화제(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더라도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글을 읽을 때 글의 주제, 화제를 잡는 것은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꼭 '글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기억하면서 글을 읽으세요.

## I 키워드

화제는 곧 글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이루는 내용 요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단어 즉, 키워드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잡고 연결하세요. 그게 화제를 파악하는 연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핵심 키워드 단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화제로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단어만 체크하면 되냐?

### 아닙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생소한 경제 뉴스를 읽는다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하겠죠. 그럼 용어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읽어 보시죠.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3억2천440만 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7개 사 9천211만 주, 코스닥시장 52개 사 2억3천228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0.4%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38% 늘어났다.

- 한국경제 TV 기사 中 -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줄을 추가해 볼게요.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3억2천440만 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7개 사 9천211만 주, 코스닥시장 52개 사 2억3천228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0.4%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38% 늘어났다.

- 한국경제 TV 기사 中 -

어때요, 조금 낫지 않으신가요? 이 기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의무보유’였습니다. 위의 경우와 다르게 아래의 경우에는 이 의무보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무보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그나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억 2천여 개의 주가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똑같이 키워드에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키워드의 ‘정의’와 ‘속성’입니다. 수능 지문에서도 생소한 개념에 대한 글을 자주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수험생이 양자 역학적 터널링 기술이나, 가능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을 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문을 이해하고 글의 이해를 묻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문에서 해당 개념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 정보들은 항상 ‘정의’와 ‘속성’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아는 그 Definition입니다. 속성은 정의 이외에 어떤 키워드들의 특징이라고 할만한 모든 정보들을 통칭합니다. 이때 정의와 속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하나의 특징은 있습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볼게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과거제의 정의가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것과 과거제의 특징이 ‘합리성’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제는 ‘능력주의적(정의)이니까 합리적이다(속성)’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평가원이 정의를 주는 방식인데요. 평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제시합니다. 일반적 정의와 숨겨진 정의가 대표적이데, ‘숨겨진 정의’로 문장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해당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자칫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게요.

## 1. 일반적 정의

일반적 정의는 말 그대로 ‘A는 ~이다’와 같은 꼴로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A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정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예시로 봅시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사회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이론의 정의는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이라고 하네요.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절대 위치’, ‘상대 위치’라는 키워드의 정의를 ‘A는 ~이다’와 같은 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일반적 정의입니다.

## 4. 예시와 재진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의 독서(비문학) 지문을 보시면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지문만 봐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뭔가 내용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저도 문제를 내 본 입장으로서, 지문의 소재를 가져올 때 정말 많은 논문과 전공 서적들을 며칠 밤을 새 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응시하는 시험에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라고 출제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리가 ‘국어 영역’의 ‘독서’ 파트를 공부한다는 생각을 다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학문적 의미, 이론적 원리 이런 것들을 100%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글’을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은 우리가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예시·재진술’입니다.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평가원은 항상 예시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재진술’ 문장을 마련해둡니다. 우리는 그럼 어려운 내용을 받아들일 때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붙잡을 게 아니라, 화제를 잡고 정의를 중심으로 글의 맥락을 파악한 후 뒤에 있는 예시와 재진술 문장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 4-1. 예시

#### 지문 A.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어려웠던 지문 중 하나인 예약 지문입니다.

예약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면서 최대한 이해해보고, 다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 I 인문&예술 지문 독해 태도

인문&예술 제재를 다루는 글은 보통 특정 사상가의 관점을 담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교과서에 서는 인문 제재를 다루는 글의 특징으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나 세계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를 다룬다고 직접 제시하기도 합니다. 주제만 들어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기출에 자주 등장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문 제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난이도와 별개로 읽었을 때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거나, 알 듯 말 듯한 수준으로 밖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인문 제재의 지문이 고정으로 출제되는데, 이 지문의 문체마저도 비유적이고 추상적이라 더욱 힘들어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교과서에서는 “추상적인 주제를 구체적 현실과 연계하여 이해하라”라고 제시합니다. 이 해결책마저도 어렵습니다. 수능에 조금 맞게 말을 바꾸어 볼게요. 추상적인 인문&예술 지문을 읽을 땐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 I 지문의 화제를 ‘하나의 핵심’으로 명료화하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독해 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문&예술 지문은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와 재진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예술 지문은 어떤 예술적 이론을 보여주는 실제 작품의 예시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문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의 핵심을 파악하고, 예시로 이해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재진술 문장으로 그걸 명료화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예시로 볼게요. 색깔이 칠해진 부분을 중심으로 뒤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세요.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읽어보셨나요? 사실 뒤의 모든 문장은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니까 대가 없이 자유를 내어놓지 않을 것이고, 이익에 따라 행동하니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로 합의할 것이고, 이익에 따라 행동하니까 행복을 증진시킬 때 법이 잘 준수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지문 풀이는 뒤에 수록된 지문 전체와 문제를 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3.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데는 동의하는군.



알렉산더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과 속의 분류 체계가 다양하게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성스러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기준에 따라 성스러움, 가치를 판단하니까 이것은 다양한 성스러움, 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리고 <보기>의 시민들은 각기 다른 가치에 따라 찬성 반대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고요. 그럼 ‘대본’이라는 것 자체를 ‘가치’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군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찬/반으로 나뉜 건 그냥 소각장 유치에 대해서 배우들이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시킨 거 아니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배우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경제 발전’이라는 가치와 ‘환경’이라는 가치로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해설입니다. 그치만 충분히 생각해볼 법하고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지문 분석이고 선지를 분석하는 이유이니깐요.

[36~40]

## 문단 단위 해설 - #1문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믿음’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적 인식론자는 태도, 베이즈주의자는 ‘정도’가 핵심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뒤에서는 베이즈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알아 보겠구나 정도까지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곧 화제겠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속 읽는다면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의 입장 차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재진술해 주고 있긴 하지만요.

## #2문단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

역에 포함되는 거래요. 여기까지 읽으면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의 차이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전통적 인식론자는 태도 자체를 3개로 못 박아둔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태도를 '정도'의 범주로 봐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본 거예요.

### ③ 화제 파악하기

그럼 뒤에서는 베이즈주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정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게 핵심이죠? 화제 잡고 넘어갑시다! 믿음에 대한 베이즈주의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읽어야겠어요.

#### comment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 분들을 위해 좀 풀어서 써볼게요. 이해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라데이션 분노'라는 말을 쓰죠? 점점 글에서 분노게이지가 커지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라데이션 분노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라데이션 분노가 드러난 글을 읽었을 때, 이 글 자체는 화났다, 안 났다, 화가 나지도 안 나지도 않았다 이걸 단정해서 말하기가 애매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가장 강한 믿음 ~ 가장 약한 믿음을 그라데이션처럼 연속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능적으로 읽기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겠다 싶어서 한 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 #2문단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봤던 내용들 끌고 와야겠죠? 또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 중에서 베이즈주의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줘야 해요.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그래서 바로 베이즈주의자와 연결해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재진술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알게 된 상황을 베이즈주의자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는 뜻이에요. 엄청 중요한 문장이예요.

또 앞에서 본 대로 베이즈주의자는 참·거짓에 대한 믿음을, '정도'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거짓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믿음의) 정도'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된 것은 곧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베이즈주의자는 참·거짓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태도를 믿음의 정도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을 알게 됐다라는 말은 결국 그 명제가 참 혹은 거짓이라는 '태도'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강하게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로 표현하니깐요!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볍게 '참·거짓에 대한 사실을 새롭게 아는 것 =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만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위에서 설명했죠?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서술의 초점 잡기 - 화제의 구체화

앞에서 믿음의 정도가 변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었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화제가 구체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어차피 베이즈주의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겠다는 게 곧 화제였으니까요. 또 믿음의 정도가 변한다는 건 곧 명제의 참·거짓을 새롭게 아는 경우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③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 자칫 잘못하면 틀리기 쉬운 선지입니다. 중요한 건 위치 측정 기술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지정한다는 점이에요. 비콘 활용 기술이니까 맞겠지~ 하고 넘겼다면 틀리기 십상입니다. 지문을 읽을 때부터 '기준점'에 주목하면서 읽었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선지이기도 하고요.

④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 당연합니다. 새로 수신된 비콘 신호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지정해주니까 비콘을 이동한다면 새로 갱신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기준점 a 주위에 비콘 A를 설치해놓고, 비콘 A를 기준점 z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단말기가 기준점 z 근처로 가게 되어서 비콘 A의 신호를 받게요. 그런데 이걸 갱신해두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는 비콘 A의 신호를 받으니까 이전에 비콘 A가 있던 기준점 a로 단말기의 위치를 설정할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⑤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 위치 지도의 정의 자체를 물어봅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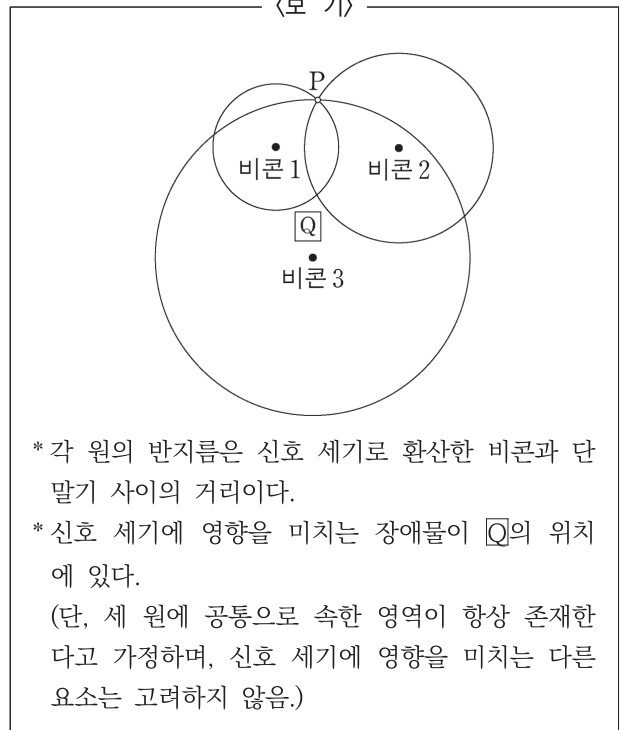
**comment**

지문 해설에서 강조한 포인트가 그대로 녹아있는 문제입니다. 위치 지도 기법을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해했다면 쉬운 문제였을 것이고, 단순히 '비콘'만 떠올리면서 이해했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지문에서 어떤 기술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잡고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23.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③**

- '3개의 비콘 신호'를 보자마자 바로 삼변측량 기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럼 바로 <보기> 보러 갑시다.



- 거리를 반지름으로 나타냈다는 포인트와 함께 신호 세기에 대한 비례/증감을 떠올려야 합니다! '거리 ↑, 장애물 ↑ - 신호 세기 ↓' 기억하시죠? 그럼 <보기>의 비콘 3, 2, 1 순서대로 거리가 멀고 신호 세기가 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크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삼변측량 기법답게 세 원의 교점(P)을 단말기의 위치로 정하겠어요.

① 근접성 기법과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 근접성 기법대로라면 가장 가까운 비콘 1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되겠죠. 삼변측량 기법을 이용한다면 교점 P가 단말기의 위치일 것이고요.  
**#선지 포인트 : 근접성 기법과 삼변측량 기법의 정의**

②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비콘 2, 비콘 3의 신호 순이겠군.

→ <보기>를 보면서 바로 파악했던 내용이죠? 반지름은 거리로 환산한 '신호 세기'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신호 세기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반지름과 신호 세기도 반비례할 거예요. 즉, 반지름이 클수록 신호 세기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선지 포인트 : 신호 세기에 대한 비례/증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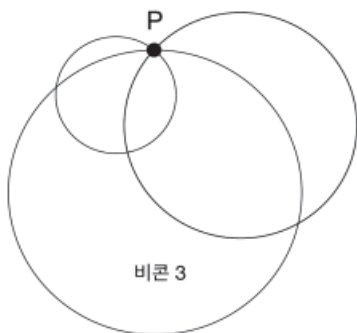
③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 비콘 3과 교점 P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신호 세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었죠? 그리고 신호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즉, 장애물이 없다면 측정된 신호 세기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리가 더 가깝겠네요. 장애물 때문에 신호가 더 약하게 측정되고 그것 때문에 거리를 더 멀다고 측정한 상황이니깐요. 그럼 실제 위치는 당연히 더 가까이에 있겠네요.

**#선지 포인트 : 신호 세기에 대한 비례/증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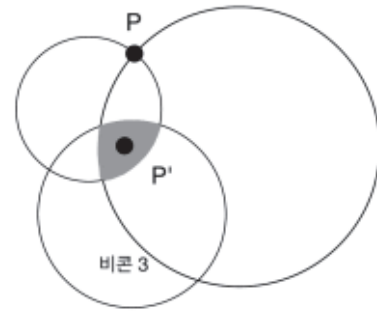
④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③번 선지와 같은 포인트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신호를 약하게 측정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신호가 더 강하게 측정될 거예요. 그럼 거리가 가깝다고 측정될 테니, 거리를 환산한 반지름도 줄어들겠죠. 그럼 P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Q 방향으로, P의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비콘 3의 크기를 줄여서 직접 그려보세요!



원래 이런 그림이라면

비콘 3이 줄어들 때 이런 그림으로 바뀔 겁니다. 이때 단말기의 위치로 정해지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P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선지 포인트 : 신호 세기에 대한 비례/증감 관계**

⑤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역시나 비례/증감 관계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비콘 2의 세기만 약해진다면 똑같이 반지름이 늘어나겠죠. 그럼 비콘 2 방향에서 멀어지겠네요.

**#선지 포인트 : 신호 세기에 대한 비례/증감 관계**

## ② 숨겨진 정의 체크하기

여기서 비교지점만 잡고 넘어가기 보단 계약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어요. 지문의 흐름상 계약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의 합치'입니다. 계약의 숨겨진 정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효과는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효과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예시 이해하기

계약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팔겠다, 사겠다고 같은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대요. 당연하죠?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한테 물건을 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대신 그 물건의 값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예시 이해하기

이번에는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의 값을 매도인에게 줘야 하고, 물건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매수인과 매도인은 둘 다 매매 계약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었죠? 매도인은 물건을 줄 의무와 돈을 받을 권리,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권리와 돈을 줄 의무가 있었어요.

### ✓ 심화적 독해 태도

#### ① 내용 이해하기 - 예시를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읽었으면 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매매 '계약'의 예시입니다. 즉, 계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의사 표시의 합치와 함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개념이었어요. 일단 의사 표시의 합치는 '사겠다, 팔겠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효과는 뭔가 명시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물건을 사고팔기 위한 일 겁니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 맥락에서 설명된 부분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매매 계약을 했고 그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겼죠.

그럼 매매 계약도 결국 '계약'이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이겠네요.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결국 법률 효과가 되는 것이죠.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과 동시에 물건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매수인은 물건의 이전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권리와 더불어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런 권리와 의무가 법률 효과입니다. 이 포인트를, 계약의 속성과 예시를 연결하면서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 #2문단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정의 체크하기, ② 내용 연결기

법률 행위의 정의를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이처럼'은 곧 앞에서 할한 '계약'을 가리키는 말이니깐요.

물론 계약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도 '사겠다, 팔겠다'처럼 '의사 표시' 자체가 필요했고, 청구권 및 이행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켰으니깐요. 심화적 독해 태도 해설에서 설명했죠?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실전이라면 이 문장을 보고 반드시 '계약 = 법률 행위'임을 잡아야 합니다. 계약도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죠? 그런데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가 무엇인지는 여기서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 = 법률 행위라는 점을 집어줬으니, 청구권과 이행 의무가 곧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라는 점을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실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 ② 숨겨진 정의 체크하기, ③ 균집화

이 문장을 보고, 계약이 곧 법률 행위라는 점을 생각한 후 매매 계약의 예시와 법률 행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청구권과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게 법률 효과라는 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말 어렵죠? 아무튼 청구권과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게 법률 효과라는 점을 알았으니, 법률 행위와 같은 균집으로 묶어줍니다. 계약과 법률 행위는 당연히 묶으셨겠죠?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균집화, ② 정의 체크하기 - 단어 뜯기

이번에는 채권과 채무를 바탕으로 청구권과 이행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채권이 어떤 권리이고 채무는 어떤 의무라는 점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어휘력이니까 혹시나 몰랐다면 꼭 알아둡시다 아무튼 그렇게 청구/권(권리)은 채/권이고 이행//의무는 채/무라고 합니다. 역시나 같은 균집으로 묶어줘야겠죠?

#### ②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그럼 자연스럽게 채권과 채무도 곧 법률 행위로 발생하는 법률 효과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매매 계약의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의무는 각각 연결되어 있었죠? 매도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매수자는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매수자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매도자는 물건을 줘야 할 의무가 있었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약에서는 일방적인 채권 - 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 맥락에서 이해하면 1문단의 마지막 줄에 대한 재진술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된다고 하는 것이네요. 소름 돋죠?

아무튼 채권과 채무는 법률 행위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입니다. 계속 법률 행위, 법률 효과를 중심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단 해설에서 말했듯 화제는 잡을 수 있겠죠?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